

의료·보건계열 면접 예상질문 & STAR 모범답안

「면접끝판왕」 통합개정판 교재 코어 무료 공개 문항 · 2026학년도 기준 · 평가 의도와 STAR 구조 모범답안 예시 수록

Q1. '항암 치료란 무엇인가?'를 읽었죠?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.

· 평가 의도 · 의료 독서 활동의 구체성과 전공 이해 확인

[결론]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항암 치료가 '암과의 싸움'이기 이전에 '환자의 남은 삶을 설계하는 일'이라는 점이었습니다.

[상황·과제(ST)] 치료 효과와 부작용, 비용을 함께 다루는 장을 읽으며, 의학적 최선과 환자의 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

[행동(A)] 이후 완화의료와 공동의사결정(SDM)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 읽고, 생명과학 세특 발표에서 '치료 목표 설정의 윤리'를 주제로 다뤘습니다.

[결과·배움(R)]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큼이나 환자의 가치관을 듣는 대화 능력이라는 결론을 얻었고, 이는 제가 의료인을 지망하는 태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.

☒ 코칭: 독서 소감 질문은 '내용 요약 → 촉발된 질문 → 후속 탐구 → 가치관 변화'의 순서로. 요약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.

Q2. 과학멘토링 동아리에서 인상적이었던 일을 말해보세요.

· 평가 의도 · 봉사 활동의 구체성과 배운 점 확인

[결론] 제가 가르친 지식보다, 후배의 '틀린 질문' 하나가 저를 더 성장시킨 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.

[상황·과제(ST)] 삼투 현상을 설명하는데 후배가 '그럼 링거액 농도는 누가 계산하냐'고 물었고, 저는 정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.

[행동(A)] 함께 등장액·저장액 개념부터 수액의 종류까지 찾아보며 그 자리에서 미니 탐구로 확장했고, 다음 주에 정리 자료를 만들어 다시 설명했습니다.

[결과·배움(R)] 모른다고 인정하고 함께 찾는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의료 현장에서 설명 의무는 결국 이런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

☒ 코칭: 멘토링 경험은 '잘 가르쳤다'보다 '가르치다 배웠다'는 역전 구조가 훨씬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.

Q3.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해 발표했다고 하는데, 그 사례를 이야기해보세요.

· 평가 의도 · 발표 활동의 사실 확인과 의료 쟁점 이해 평가

[결론] 제가 발표에서 다룬 사례는 수술 부위 착오 사고였고, 핵심 원인은 개인 실수가 아닌 확인 절차의 부재였습니다.

[상황·과제(ST)] 사고 기사를 접하고 '왜 반복되는가'가 궁금해,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자료로 유형별 원인을 조사했습니다.

[행동(A)] 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 도입 전후의 합병증 감소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며, 처벌 중심이 아닌 시스템 개선 중심 접근이 효과적임을 발표했습니다.

[결과·배움(R)] 안전은 유능한 개인이 아니라 잘 설계된 절차가 지킨다는 것, 그리고 분쟁 예방의 출발이 충분한 설명과 기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.

☒ 코칭: 민감한 주제일수록 감정적 비판 대신 데이터와 제도 개선 관점으로 말하면 성숙함이 드러납니다.

Q4. 수학 관련 상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인가요?

[결론] 수학은 저에게 의학과 가장 가까운 언어였기 때문입니다.

[근거] 진단의 민감도·특이도, 약물 반감기, 역학의 감염재생산지수까지 의학의 판단은 수학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.

[사례(STAR)] 확률 동아리에서 베이지 정리로 '검사 양성일 때 실제 질병일 확률'을 계산해 보며, 유병률이 낮으면 양성 예측도가 급락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.

[마무리] 이 경험 이후 의사에게 수리적 사고는 선택이 아니라 오진을 줄이는 안전장치라고 믿게 됐고, 그래서 수학에 꾸준히 몰입했습니다.

☒ 코칭: 타 과목 수상 질문은 '전공과의 다리'를 놓는 기회입니다. 전공에서 그 능력이 쓰이는 실제 장면을 제시하세요.

Q5. 학과와 본인의 적합한 점을 이야기해보세요.

[결론] 저는 '꾸준한 성실성'과 '사람에 대한 관심'이라는, 이 학과가 요구하는 두 축을 모두 증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.

[근거·사례1(A)] 3년간 결석 없이 아침 자율학습을 지켰고, 생명과학 심화 탐구를 학기마다 이어가며 지적 지구력을 길렀습니다.

[근거·사례2(A)] 요양원 봉사 2년 동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'경청 노트'를 만들며, 아픈 사람의 말에는 증상 이상의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

[마무리] 성실성은 방대한 의학 지식을 감당하는 힘으로, 경청은 환자 중심 진료의 바탕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.

☒ 코칭: 적합성 질문은 학과 인재상 키워드 2개를 고르고, 각각에 증거 활동 1개씩을 매칭하는 2×2 구조가 깔끔합니다.

더 많은 문항·AI 채점 훈련은 interviews-platform.netlify.app 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가입 없이 진단 체험 가능)